

자치단체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오는 15일 전국 최초 전남체육회장 선거



전남체육회는 지난날 3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치러지는 전남체육회장 선거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공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전남체육회장, 김재무·박철수 '2파전'

김재무 “튼튼한 재정자립도…전남 체육 르네상스 시대 구현”

박철수 “전남형 체육발전 모델 구축…새로운 100년 열겠다”

내년 1월16일부터 3년간 전남 체육을 이끌어 나갈 전남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체육회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재무(가나다 순)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철수 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 첫 전남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개정안이 공포 1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초대 전남 민간 전남체육회장에 출사표를 낸 김재무 후보는 ‘전남체육회 민선시대 제2의 도약’을 이룬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튼튼한 재정자립도로 전남 체육 르네상스 시대 구현 ▲전문 체육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 복지와 성장 기반 구축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전남 체육 위상 제고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국회 및 전남도·전남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 자립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기초종목 육성에 취약하고 우수 지도자·우수 선수에 대한 타 시도 유출로 전남체육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 확대와 연계 육성 시스템을 통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 종목단체

별 실업팀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 100세 시대’ 200만 도민 1인 1종목 체육문화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체육인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심하고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한 “2022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전남 체육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종 대회, 전시 훈련 유치로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수 후보는 ‘전남체육의 100년 미래를 생각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체육단체 자생력 강화 ▲체육회 및 체육단체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웰빙복지 구현 ▲전남형 체육발전 모델 개발 ▲회원종목단체 운영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체육회 법인화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과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스포츠 시설 위탁 운영과 스포츠산업인력을 주축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능동적인 재원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회가 도민과 체육인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서비스 지원체제로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3년 단위 계획을 통해 2022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금 조성’ 프로젝트를 가동, 체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상시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의사 결정과정구조를 조직 구성원과 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아 “전



김재무

박철수

자문서 시스템을 확대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을 개설, 각종 스포츠 행사를 빠르고 생동감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체육활성화 일환으로 JN(전남)리그전을 만들고 탄력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현실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마지막으로 “전남형 체육발전 모델을 개발해 예산의 효율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현실화해 ‘체육형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체육회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공정명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전남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11명)을 비롯해 22개 시·군체육회 임 직원과 선거관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 결의문에 서명하고 ‘공정선거 선거중립’이라는 수건 퍼포먼스를 하며 결의를 다졌다.

전남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30일 선거인 399명 중 당연직(정회원종목단체장 57명, 시·군체육회장 22명) 79명을 제외한 320명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남체육회장 선거인을 확정했다. (단, 선거인수 배정에 있어 가중치 및 추가 배정 인원 미충족회원종목단체 부분에 있어 선거인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중 기자

KLPGA 새 시즌 개막…오늘 베트남서 효성 챔피언십 티오프



지난달 29일 열린 여자프로골프 오렌지리프트 챔피언십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첫날 경기에서 최혜진(왼쪽)과 임희정이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풍’ 임희정, 최혜진 아성 깨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올해가 가기 전 베트남에서 2020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11월 ADT캡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감한 KLPGA 투어는 6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트윈도브스 골프장에서 새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2017년 최혜진(20)이라는 스타 탄생에 예고하기도 했다.

최혜진은 2019년에 대상, 상금왕 등 KLPGA 투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여자골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최혜진은 올해에도 출전해 지난해 박지영(23)에게 내줬던 우승 트로피 탈환을 노린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19세의 신예 임희정이다.

임희정은 이번 시즌 후반기에만 3승을 올리는 돌풍을 일으켰다. 전반기 성

적이 부진했던 탓에 조아연(19)에게 신인왕을 넘겨줬다.

임희정의 상승세는 정규 시즌으로 끝나지 않았다.

11월 29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벤트 대회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에서 임희정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을 꺾는 맹활약을 펼쳤다.

이 대회 첫날 포볼 경기에서는 최혜진과 짝을 이뤄 박인비(31)-대니엘 강(미국)에 완승을 했다. 둘째 날 포스트 경기에서는 박민지(21)와 한팀이 돼 리디아 고(뉴질랜드)-이민지(효주)를 꺾었다.

임희정은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도 이민지를 제압, 지난해 대회에서 3승을 올리며 필멸 날았다.

임희정과 신인왕을 경쟁했던 조아연도 이번 주 대회에 출전해 신예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제15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김지은 감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 박연수·김지형 ‘金물살’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배영 50m·평영 50m 1위

광주체육중이 지난 1일 김천종합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15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남자 중학부 배영에 출전한 박연수는 50m 경기에서 27초99로 금메달을, 1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영 200m에서 출전한 정현우도 2분 23초9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중학부에서는 김지형이 평영 50m에서 33초11로 금메달을,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이 획득한 메달 5개는 수영 선수층이 얇은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김지은 광주체육중 수영부 감독은 “올해 마지막 대회지만 선수들 간에 긍정적인 경쟁 효과로 인해 기량이 상당히 평준화되고 있어 2020년 소년체육대회도 기대가 된다”며 “국민 건강스포츠인 수영을 더 많은 학생들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손흥민, 맨유戰 득점포 침묵 7경기연속 공격포인트 무산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사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상대로 치른 ‘모리뉴 터비’에서 득점포가

동에 실패하면서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에 실패했다.

더불어 토트넘 사령탑 부임 이후 3연승을 내달린 조제 모리뉴 감독도 1년 전 자신을 경질한 맨유와 맞대결에서 첫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토트넘은 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유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 L) 15라운드 원정에서 마커스 래시퍼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끝내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최근 6경기 연속으로 이어졌던 손흥민의 연속 공격포인트 행진도 7경기에서 멈췄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열린 ‘2019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이웅섭 광주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최고의 해’…광주장애인체육인의 밤 성료

사기 진작·화합 한마당…정현정 등 15명 체육진흥상 수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이웅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선수 및 장애인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광주 장애인체육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장애인체전에서는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탁구, 사격 등 9개 종목 22개 국제대회에서 총 6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광주 장애인체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장애인체육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제39회 장애인체전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 및 금메달(3관왕)을 획득한 정현정(역도) 등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지도자 15명이 체육진흥부문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올 한 해 장애인체육인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 가맹단체, 자원봉사자, 우수 직원 등 30명에 대해서도 상패와 상장이 전달됐다. /박희중 기자